

Provincial Economic Trends in China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10년 8월 5일



이 형 근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전문연구원 (hklee@kiep.go.kr, Tel: 3460-1069)

임 민 경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 권역별·성별연구단 연구원 (mklim@kiep.go.kr, Tel: 3460-1288)

■ 중국 랴오닝성 선양(沈陽)에서 제10차 중·일 경제협력회의가 2000년 5월 31일 ~ 6월 2일에 개최된 것을 계기로 중국 동북지역과 일본 간 경제협력채널에 대한 관심이 커짐.

- 중국 동북(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네이멍구 자치구)은 중앙정부의 동북진흥정책에 따라 향후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임.
- 중국 동북지역과 일본의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는 양자간 경제교류 강화를 위해 2000년부터 ‘중·일 경제협력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본의 일·중 동북개발협회가 커다란 역할을 했음.
- 일·중 동북개발협회는 1984년에 설립된 이래 일본기업의 중국 동북지역 진출 지원, 경제협력회의의 개최, 인적교류 추진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중·일 경제협력회의는 ‘지방정부+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채널로서 양자간 협력강화에 기여함.

- 경제협력회의가 시작된 이후 2008년까지 랴오닝성에 대한 일본기업의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10.3%로, 이는 대중 전체투자 증가율인 2.9%에 비해 높은 증가세임.
- 향후 중국의 동북진흥정책이 성공적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일본기업의 참여가 절실한바, 중·일 경제협력회의와 같은 협력채널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동북 3성 현지에 설립·등록된 한국 민간경제협력단체는 소수 존재하며 대부분 지역 이슈에 관한 의견교환 및 정보공유 차원의 성격이 강함.

- 양국 정·재계 인사 초청이나 투자설명회 등을 포함해 대중국 지역별 민간교류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양자간 협력채널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1. 도입

- 2010년 5월 31일 ~ 6월 2일에 중국 랴오닝성 선양(沈陽)에서 제10차 중·일 경제협력 회의가 개최됨.
- 중·일 경제협력회의는 중국 동북지역과¹⁾ 일본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음.
- 중국 측에서는 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네이멍구 자치구 지방정부, 일본 측에서는 민간경제단체인 일·중 동북개발협회 및 일·중 경제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양국에서 관련 지자체의 고위관료와 경제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다수가 참가함.
- 중국 동북지역과 일본의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는 이미 오래 전부터 경제협력채널을 구축하여 양자간 협력관계를 강화해오고 있음.
- 일본의 경제단체인 일·중 동북개발협회는 중국 동북지역과 일본의 경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1984년에 설립되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
- 2000년부터는 중국 동북지역의 지방정부와 일본의 일·중 동북개발협회가 주도하는 경제협력회의가 매년 개최되면서 양자간 경제협력채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경제협력회의의 주요 의제는 환경·에너지절약·녹색농업 등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진흥정책의 중점 사업과 긴밀히 연계되어 선정되고 있음.

2. 중국 동북지역과 일본 간 경제협력채널의 현황

가. 중·일 경제협력회의의 특징

- 중·일 경제협력회의는 2000년 이후 주로 중국 동북지역의 도시를 중심으로 순번을 정해 개최되었는데, 이러한 순회 개최를 통해 해당 지역별 투자 확대를 유도함.
- 총 10차례의 회의 가운데 8차례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진행되었고, 나머지 두 차례는 일본의 중·북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에서 개최됨.

1) 중국정부가 발표한 동북진흥정책에 의하면 동북지역의 '범위'는 동북 3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및 네이멍구 자치구 동부(东四盟市)를 지칭함. 동쓰멍시(东四盟市)는 呼伦贝尔市·通辽市·赤峰市·兴安盟·锡林郭勒盟(三市两盟, 3개 市와 2개 盟) 지역임.

표 1. 중·일 경제협력회의의 역대 개최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개최 지역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없음	미야기현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니가타현	네이멍구 자치구	랴오닝성
개최 도시	선양시	창춘시	하얼빈시	없음	센다이시	선양시	창춘시	하얼빈시	니가타시	후허하오터	선양시

자료: 각종 자료를 통해 정리.

- 중·일 경제협력회의의 의제는 환경·에너지절약 등 동북진흥정책의 중점 사업과 해당 개최 지역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선정됨.
- 2010년 제10차 선양 회의에서는 동북진흥정책의 핵심 내용인 저탄소·장비제조·녹색농업 분야와 지역수요를 고려한 현대건축산업 분야가 4대 주제로 선정됨.
- 제9차 네이멍구 후허하오터 회의의 경우 자원에너지, 녹색농업 등 네이멍구 자치구의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의제를 설정함.

표 2. 제10차 중·일 경제협력회의 일정

일시	주요 내용	
2010년 5월 31일	오전	- 중·일 양국대표 라운드 테이블 개최
	오후	- 4대 분과회의(현대건축, 저탄소, 설비제조, 녹색농업) 개최 - 양국 경제계 대표자 간 VIP회담
2010년 6월 1일	오전	- 중국 동북 3성의 주요 도시(선양시, 다롄시, 창춘시, 하얼빈시, 후허하오터시)와 일본 지방도시(센다이시, 니가타시, 삿포로시, 가와사키시) 간 시장(市長)포럼 개최
2010년 6월 2~4일	지역 시찰	

자료: 각종 자료를 통해 정리.

- 중·일 경제협력회의는 중국의 동북 3성 및 네이멍구 자치구의 지방정부와 일본 경제계의 일·중 동북개발협회 및 일·중 경제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정형화되고, 회의 규모도 점차 대규모화됨.
- 제10차 선양 회의에는 양국 동북지역 지자체의 고위간부와 경제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이 대규모로 참가함.
- 중국 측은 동북 3성 및 네이멍구 자치구와, 선양시, 다롄시, 창춘시, 하얼빈시, 후허하오터시 및 랴오닝성의 12개 시정부의 고위급 간부, 경제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450여명이 참가함.

- 일본 측은 일·중 동북개발협회, 일·중 경제협회 등의 경제계를 비롯해 일본 동북지역의 7개 지자체(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니가타현, 토야마현, 홋카이도)와 관련 도시(센다이시, 니가타시, 삿포로시, 가와사키시)의 고위 간부, 여타 경제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가함.
- 과거 최대 규모였던 제9차 회의(624명 참가)에 비해 제10차 회의에는 더 많은 인원이 참가했는데, 중국정부의 동북진흥정책 추진에 따라 개별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경제협력회의에 대해 관심이 더욱 확대된 것임.

나. 일·중 동북개발협회의 역할과 활동

1) 일·중 동북개발협회의 설립 경위와 주요 활동

■ 일·중 동북개발협회의 설립

- 일·중 동북개발협회는 1984년 다롄시의 개방도시 지정²⁾을 계기로 일본과 중국 동북지역과의 경제교류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발족됨(최초 명칭은 다롄경제개발협력회, 1년 후 현재의 명칭으로 개명. 본부는 도쿄 소재).³⁾
- 일·중 동북개발협회는 회칙에서 ‘일본과 중국 동북지역(다롄시,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네이멍구 자치구 등) 간 경제·기술 교류를 촉진하고, 양국간 경제관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음.

■ 일·중 동북개발협회의 주요 활동

- 일·중 동북개발협회는 설립 이후 26년간 중국 동북지방과 일본 경제계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동북지역에 대한 일본기업의 투자 촉진, 일본공업단지 건설 추진, 일본의 ODA를 통한 다롄의 따야오완(大窯灣) 신항 건설 및 헤이룽장성 썌장(三江)평원 개발, 지린성 종합개발조사 등의 활동을 전개함.
- 2000년 이래 새로운 시도로서 중국의 동북 3성 및 1자치구와 일본의 광범위한 관계자 간 ‘대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중·일 경제협력회의를 개최함.
- 2003년에는 일·중 경제협회와 사무국을 통합하여 새로운 체제를 발족함(현재 일·중

2) 랴오닝성의 다롄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하에서 동북지역의 대외개방을 위한 창구로서 연해 개방 14개 도시의 하나로 지정됨.

3) 2009년 9월 현재 랴오닝성 다롄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3,945개사(등록 기준)로 미국의 2배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이곳에 진출한 외자의 2/3을 차지함.

동북개발협회는 일·중 경제협회와 협력관계임).⁴⁾

- 2006년 4월에는 중국 동북지역과의 협력관계 강화 및 현지진출 일본기업과의 연대 긴밀화를 위해 선양사무소를 개설함(일·중 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사무소를 운영).
- 2007년과 2008년에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 차원에서 대중국 엔차관 프로젝트(지린시 종합 환경정비사업 및 하얼빈시 물(水)환경정비사업, 총액 171억 엔)와 관련된 기술자연수를 일본 지자체를 통해 실시함.

2) 2010년 사업 계획의 주요 내용

- 2010년에도 일·중 동북개발협회는 중국 동북지역과 지자체 및 민간경제단체 차원에서 협력 가능한 사업을 지속할 예정임.

표 3. 일·중 동북개발협회 2010년 주요 사업

사업	주요 내용
2010년 중·일 경제협력회의 개최	중·일 기업간 협력(중국 국유·민영기업과 일본기업) 도모
대중국 엔차관 사업관련 일본지자체에서의 기술자연수 실시	네이멍구자치구 후허하오터시 대기환경개선사업 방일단 초청 및 연수시찰(에이지현 오카자키시)
에너지절약·환경 및 농업 분야에서 의 협력	일·중 경제협회와 협력해 '일·중 농축산업 식품산업 연구회(가칭)' 설립을 검토 중
건설팅, 정보수집·전달 및 홍보	J+C ECONOMIC JOURNAL(일·중 경제저널)에 중국 동북지역과 일본 간 교류에 관한 최신 정보 제공
중국동북지방 및 동북아시아 경제 교류	두만강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현지시찰단 파견·조사 등 활동
선양사무소 운영	중국 동북지역의 각 정부부처와의 협력관계 유지 및 동북진 흥정책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

자료: 일·중 동북개발협회 홈페이지.

- 이 외에도 동북 각지의 일본공업단지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동북 각지의 일본공업단지 프로젝트 가운데 특히 선양경제기술개발구 내의 일본공업원 등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계속 진행함.
- 2010년에도 선양사무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 지역에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동향을 상세히 조사하여 접촉을 시도하는 등 기업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4) 일·중 경제협회는 1972년 중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와 함께 발족된 재단법인으로 1984년 설립된 일·중 동북개발협회보다 더 오랜 역사와 더 큰 조직규모를 갖고 있음.

표 4. 동북 지역의 일본공업단지 프로젝트

소재지	특징
선양경제기술개발구 (랴오닝성 선양시)	- 공업기지로의 발전, 도시개조·국유기업개조 등과 관련 - 개발구 내에 일본공업원(면적 5만㎡, 표준공장 9개 동), 선양 현대건축산업파크가 있음.
훈춘변경경제합작구 (지린성 훈춘시)	- 2008년 10월에 ‘훈춘 지린성 일본공업단지’ 착공. 과거 시(市) 차원의 공업단지에서 성(省) 차원의 공업단지로 한 단계 격상됨.

자료: 日中東北開發協會(<http://www.jc-web.or.jp/JCSite.aspx?SNO=003>).

3) 일·중 동북개발협회 활동의 의미 및 성과

■ 의미

- 첫째, 일·중 동북개발협회는 민간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사업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1984년 설립 이후 26년에 걸친 중국 동북지역과의 협력관계 및 이를 통해 구축된 현지 인맥을 활용해 일본기업 진출 지원, 경제협력회의 개최, 엔차관 프로젝트 협력, 인적교류 추진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 둘째, 일·중 동북개발협회의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경제협력 분야는 환경·에너지절약·녹색농업 등 동북진흥정책의 중점 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 이러한 경제협력 분야는 일본정부가 지난 6월 18일에 발표한 「신성장전략」(환경미래도시 모델 및 패키지형 인프라 등의 해외 수출을 적극 추진)과 결합될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기업의 중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⁵⁾
- 셋째, 일·중 동북개발협회는 일·중 경제협회와 밀접한 협력 속에 중국 동북지역과의 경제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중국 동북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일·중 동북개발협회는 중국 전역을 망라하는 일·중 경제협회의 협력단체로서, 이러한 구조 하에서 전체 대중 전략과 대동북지역 전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5) 일본정부는 스마트 그리드, 재생가능 에너지, 차세대 자동차 등을 통합한 환경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환경미래도시 모델을 해외에 수출할 계획임. 또한 고속철도·도시교통·물(水)·에너지 등을 결합한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략프로젝트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임.

■ 성과

-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일·중 동북개발협회와 중국 동북지역 간 협력관계에 힘입어 이 지역에 대한 일본기업의 진출이 꾸준히 진행됨.
- 경제협력회의가 시작된 2000년 이후 2008년까지 랴오닝성에 대한 일본기업의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10.3%로, 대중 전체투자 증가율인 2.9%에 비해 높은 증가세임.
- 또한 2004~07년간 일본기업의 대중 투자에서 차지하는 동북 3성의 비중은 15% 이상 (2005년 제외)으로, 동북 3성 지역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아울러 일본기업의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투자는 랴오닝성을 창구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랴오닝성에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여타 업종에도 고르게 일본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에는 각각 자동차 관련업체, 식품가공업체 위주로 진출해 있음.

표 5. 중국 동북 3성에 대한 일본의 투자 추이(실행금액 기준)

(단위: 만 달러,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랴오닝성	44,910	65,881	80,675	85,252	85,972	41,003	73,991	51,079	98,480
지린성	n.a.	n.a.	n.a.	n.a.	4,958	3,155	5,163	13,347	1,593
헤이룽장성	n.a.	1,379	2,360	4,056	762	119	988	398	2,465
비중									
랴오닝성/중국	15.4	15.2	19.3	16.9	15.8	6.3	16.1	14.2	27.0
동북3성/중국	-	-	-	-	16.8	6.8	17.4	18.1	28.1

주: 위 수치는 중국 성별 통계연감에서 각 성(省)의 국가별 실제이용 외자액에 근거한 것으로, 2008년의 경우 일본의 대동북 3성 투자비중이 대중국 전체투자의 약 28%를 차지하는 등 실제 체감수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이는 한국의 대중 투자액 집계 시에도 나타나는 문제로 통상적으로 『중국통계연감』에서 발표한 대중 투자액이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집계한 수치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자료: 중국 각 성(省)별 『統計年鑑』.

3. 시사점

- 중·일 경제협력회의는 양국의 ‘지방정부+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채널로서 양자간의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여기에는 일본의 일·중 동북개발협회가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

- 아울러 중·일 경제협력회의는 중국이라는 방대한 시장을 지역별로 분할하여 접근했다는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음.
- 향후 중국의 동북진흥정책이 성공적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일본 기업의 참여가 절실한바, 일·중 동북개발협회와 중·일 경제협력회의와 같은 양자간 협력채널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한·중 사이의 민간경제협력단체는 대부분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단체로는 한중민간경제협의회가 있음.⁶⁾

- 기타 대표적인 한중민간협력 채널은 주로 교육·문화 교류에 집중되어 있고, 양국 정·재계 인사 초청이나 투자설명회 등도 간헐적으로 개최됨.⁷⁾
- 동북 3성 현지에 설립·등록된 민간경제협력단체는 소수 존재하며 대부분 지역 이슈에 관한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 차원의 성격이 강함.
- 지난 7월 5~8일 전 세계 한상(韓商) 1,200여명이 중국 내에서는 최초로 랴오닝성 선양에서 “2010 중국 글로벌 한상대회”를 개최하여 주목을 받은 바 있음.⁸⁾
- 이러한 양자간 협력채널이 지속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중국의 지역별 접근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동북지역과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하며 현지 동향이 반영된 협력사업을 발굴해야 함.

- 첫째, 기업차원에서는 동북진흥정책의 중점 사업 및 중·일 양국간 경제교류 분야를 참고하여 중국 동북지역에 진출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이 지역은 동북진흥정책에 따라 에너지절약·환경 관련 산업, 서비스업, 유통·소매

6) 한중민간경제협의회는 1992년 시작된 양국간 공식 민간경제협력기관으로서, 최근에도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한국 코트라에 해당)와 공동으로 한중합동회의 등을 개최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한·중 주요 기업인들로 구성된 회의는 개최기간 동안 양국 기업인 간 협력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중 민간경제인 협력방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함.

7) 대표적인 민간교류채널인 한중우호협회나 한중친선협회에서 최근 몇 년간 진행된 투자설명회, 정부인사 초청간담회를 살펴보면 동북 3성과 연관된 교류가 비교적 많음. 그러나 이것이 동북 3성과의 협력을 위해 특별히 조직된 활동은 아님(해당기관 전화인터뷰).

8) ‘2010 중국 글로벌 한상대회’는 기존의 세계한상대회와 별도로 재중 한국상회에서 독자적으로 개최한 행사로 선양시 정부, 주(駐)선양 한국총영사관 및 중국 한국인상회에서 공동주최했음. 본 대회기간 중 상품전시회에 참가한 한·중 8개 업체가 약 560억 원 규모의 물품거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대규모 거래가 성사되었음. 『연합뉴스』(2010.7.7), 「중국한상대회 560억 규모 거래 성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7/07/0200000000AKR20100707217900097.HTML?did=1179m>

업, 녹색농업 등의 여러 분야에서 높은 성장이 예상됨.

- ▶ 다롄의 1인당 GDP는 이미 1만 달러를 상회하여 베이징을 추월하고 상하이에 근접함.⁹⁾
- 따라서 중국 동북지역의 성·시별 업종별 성장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작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둘째, 대중 동북지역과 ‘지자체 +민간’ 성격의 경제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현지 동향이 반영된 성(省)별 협력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해 우리 지방정부와 중국 동북지역 간 경제교류 현황도 종합적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음.
- 셋째, 대중 동북지역 진출과 관련해 일·중 동북개발협회와 협력하여 중국 동북지역 및 동북아시아 관련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음.
- 동북아(중국 동북·러시아 극동·한반도·일본·몽골)에는 물류·관광 등 각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사업분야가 많이 있으므로, 일·중 동북개발협회와 장기적인 협력기반을 쌓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9) 『日本經濟新聞』(2010. 5. 31).

<부록> 최근 중국 정부의 동북진흥정책

- 국무원은 2009년 7월에 이전의 「5点 1線 계획」을 국가 프로젝트인 「랴오닝 연해경제지대 발전계획」으로 격상함.
- 국무원의 ‘동북지구 등 구 공업기지 진흥지도그룹’은 2009년 8월 17일 원자바오 총리를 좌장으로 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동북지구 등 구 공업기지의 진흥전략을 확대 실시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채택하고, 향후 동북진흥을 가속하기 위해 다음의 9가지 중점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① 설비제조업,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제조 등의 산업구조조정과 제3차산업(서비스업)의 발전
 - ② 기업의 기술 수준, 자주개발능력의 향상
 - ③ 동북지구의 국가곡물생산 기지화
 - ④ 인프라건설(에너지, 교통, 수리 프로젝트)
 - ⑤ 자원형 도시에서의 전환
 - ⑥ 생태계 환경의 보호, 그린경제의 발전
 - ⑦ 도시와 농촌을 망라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의 완비 및 의약위생 체제개혁의 추진
 - ⑧ 지역경제를 일체화한 발전
 - ⑨ 「랴오닝 연해경제지대 발전계획」(과거 5점 1선 계획)의 전면적이고 철저한 실시
- 국무원은 2009년 8월 30일 창지투(長春, 吉林, 圖們江)를 선도구로 하는 두만강 지역협력 개발계획을 국가 프로젝트로 격상함.
- 국무원은 2010년 4월 랴오닝성 선양의 개발을 위해 ‘선양경제구’를 전국에서 8번째의 시범구(국가 신형 공업화 종합개혁 시범구)로 승인함.